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실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1명		6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새해의 인수 목표가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와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물려간 성도들을 회복 하소서 - 우리에게 넓혀진 마음, 지체를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 교회생활 하다가 뒤로 물려간 성도들, 빛나간 성도들을 찾아가서 회복 시켜 주소서 - 명단을 작성하고, 중보 기도하고, 식사초대를 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2.25(목) 오전10시 작전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겨울 특강 (성경의 핵심)

- ① 일 시 : 2.23(화) 오전 10시 ~오후12시10분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여름 국제 아시아 대학생 훈련 안내

- ① 일 시 : 7.14(목)~20(수)
 - 1) 훈련 집회 : 7.14(목)~7.17(주일)
 - 2) 쉬임 여행 : 7.18(월)~20(수) 2박3일
 - ② 장 소 : 1) 훈련집회 : 대만 중부취임센터
2) 쉬임여행 : A팀 : 의관, 화련, 숙박 : 화련쪽 호텔
B팀 : 가오슝, 켄딩, 숙박 : 켄딩쪽 호텔
 - ③ 훈련 내용 : 2016년 여름 결정-연구
 - ④ 훈련 대상 : 통역없이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 졸업생, 봉사자
 - ⑤ 신 청 : 집사실로 3.1까지 신청(전국 100명 선착순임)
- * 모든 집회는 영어로만 진행함

2 서울 전시간 온라인 훈련(eFTTS) 졸업식 안내

- ① 일 시 : 3.5(토) 오후 2시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대강당
③ 신 청 :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2.26(금)까지 집사실로 신청

3. 서울 전시간 온라인 훈련(eFTTS) 안내

- ① 훈련기간 : 5년(80학점 졸업)

♠ 2016년 1월 복음에 이르는 교통 헌금과 심일조 현황

구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7지역		전체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복용교통	7	610,000	22	1,391,000	26	2,320,000	13	624,000	27	1,620,000	8	460,000	3	230,000	2	230,000	108	7,484,000
심일조		32		30		36		36		28		19		12		11	204	36,435,100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2.08.(월) ~ 2016.02.14(주일)]

[illegible]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2. 21. 16-08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임재의 떡 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 진설병의 상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상이 바깥쪽에 세워져 있지 않고 성막 안에 세워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상에 진설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었다. 그러므로 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잔치이심을 상징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타락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로 살지 못한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성막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깥뜰에서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몇 퍼센트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로서 살고 있다고 말하겠는가? 그 비율이 지극히 적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성막과 바깥쪽의 묘사를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참된 상황을 볼 수 있다. 성소 안에 있는 상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직 바깥쪽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그분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잔치 상이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범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임재의 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함

A. 임재-떡, 얼굴-떡

출애굽기 25장 30절은 “상 위에 임재의 떡(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한다. 구약에서 성소 안의 이 상위에 있는 떡은 두 가지 이름을 지닌다. 첫째는 여기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임재의 떡(the bread of the Presence)이고, 둘째는 역대상 9장 32절에서 볼 수 있는 배설의 떡(bread of arrangement)이다. 두 곳에서 흡정

요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임재의 떡 상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상징함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에 의하면 증거 궤 이후에 우리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본다. 이것은 상이 법궤에 연결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법궤는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것이며, 상은 우리의 영양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간증을 가지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야 한다. 영양분이 없다면 우리는 배고파서 결국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법궤와 우리의 영양분을 위한상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우리의 체합의 견지에서 법계와 상의 관계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체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화해 뒤편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 법계가 우리에게 영양분 있는 잔치를 누리는 상이 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지성소 안의 화해 뒤편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도 당신의 영양분을 위한상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적이 있는가? 체합적으로는 법계가 저절로 상이 되므로 상이 세워졌음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증인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생명 공급이 충분한 상이 되신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다.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문화에는 낯선 사람들이므로 증거가 우리의 체험에서 진실성의 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 법계의 화해 덮개를 누릴 때 결국 법계가 상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의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한 분 그리스도, 우리의 영양분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상과 음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신,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이신

역은 진설병(showbread)으로 말한다. 이 표현은 의미에 있어서 배설의 떡과 매우 가깝다. 떡이 어떤 방식으로 배설될 때 떡의 진열, 전시가 있었다. 그러나 진설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는 그 떡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한다. 이 떡은 진열, 전시나 배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임재의 떡이다.

임재의 떡은 분명 색다른 표현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아니므로 평범한 언어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임재의 음식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임재의 떡이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음식을 의미한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face)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0절은 임재-떡 (presence-bread) 혹은 얼굴-떡 (face-bread)을 말한다. 이 떡을 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더 나아가, 이 떡을 먹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먹는다. 그러므로 이 떡은 단지 진설이나 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임재의 떡의 상이 증거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상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다. 아마 우리는 임재의 떡의 의미를 어머니가 그 아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할 때 갖는 기쁨으로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 그녀의 두 눈은 아들 위에 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임재 안에서 이 식사를 즐긴다. 그러므로 이 음식은 그 어머니의 임재의 음식, 그 어머니의 얼굴의 음식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식사는 사실상 그 어머니의 임재이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 그는 그 어머니의 임재를 먹는다. 그가 그의 어머니 앞에서 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그 어머니의 임재의 음식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있는 상위의 떡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이 떡은 만나와는 매우 다르다.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리 떠나서도 모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만나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믿는 이들로써 우리의 과거 체험을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여러 해 전에 만나를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당신은 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는가? 이제 건축된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분깃을 누린다. 말로는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체험이 있다면 이해할 것이다. 신성한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잔치하고 있다.

B. 여호와의 화제 중 가장 거룩함

레위기 24장 9절에 의하면 임재의 떡은 여호와의 화제 중 가장 거룩하였다. 그것은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의 나머지를 상징한다. 이것은 임재의 떡이 하나님의 음식이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음식으로 드려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떡덩이들을 남겨 성소 안으로 가져가 상 위에 진설하고 전시되게 하셨다. 결국 성소 안에서 섬긴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었다. 이 의미는 믿는 이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그분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이 음식의 일부를 떼어 두실 것이다. 가령 누구도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하자. 그럼 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며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매주의 공급으로 남겨 두실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있는 교회 안에 아무도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임재의 떡이 없을 것이며 섬기는 사람들은 매주의 공급을 얻지 못할 것이다.

C. 성막의 성소 안 상 위에

임재의 떡은 성막의 성소 안 상 위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음식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 안의 단체적인 잔치를 위한 것임을 상징한다. 교회의 집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누림을 얻는다. 집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누림을 맛보지 못한다. 성막 안에 건축된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상 위의 그리스도를 누린다.

상 위에 있는 임재의 떡은 단체적인 잔치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상은 항상 개인적인 잔치가 아닌 단체적인 잔치를 상징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잔치한다. 분명,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어떤 누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단체적으로 하는 잔치와 비교될 수 없다. 성막 안에 있는 상 위의 떡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얼마나 부요한지!

D.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함

임재의 떡은 성소 안에서 먹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안에서 참여하고 누린 바 되도록 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회 생활 밖에서는 이 상을 가질 수 없다. 이 상은 성막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만 볼 수 있다.

E. 떡의 진설

상위에 있는 떡의 진설은 생명 공급을 상징한다. 그룹들이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임재의 떡이 있는 상은 영양분을 상징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간증과 영양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간증으로, 임재의 떡이 있는 상을 제사장들을 위한 영양분으로 가져야 한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M90-91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활(하나님-사람의 생활)
- 일상생활에서(2)**

행5:42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가정에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

최상의 가정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러한 연합의 생활이다.

최상의 가정생활과 결혼 생활과 사회생활은 그러한 생활에서 나온다.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이다. 삼십삼 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생활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모든 소극적인 것들과 크고 작은 일들에서 구원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가정들을 세움

우리는 주님이 취하시는 길이 바로 믿는 이들의 가정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가 가정에서 세워지면 그 가정은 변화된다. 남편과 아내가 다루는 부부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갖게 되면 그들의 다름은 멈출 것이다. 자녀들도 이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것에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가정은 합당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될 것이다.

**집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집회함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살**

구원의 단위는 가정임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 말할 때에는 가정을 단위로 삼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삼았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 말할 때에는 확실히 사람이 각 가정을 단위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들여 여러 성경 구절을 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 가정을 구원의 단위로 삼은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섭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장래에 다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은 영적으로도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매년 그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매년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에만 태어나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이 길을 정확히 보았다면 우리 가운데 자녀들과 아이들이 있는 만큼 구원받은 수가 있게 된다. 주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을 풀어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을 다시 밖에서 구원해야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모든 큰 고기에 의해 태어난 작은 물고기들은 다 우리 편에 서 있어야지 그들이 바다로 가고 나서 한동안 지난 후에 다시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 교회의 제2세대가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속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보기 바란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나갈 길이 있는가의 여부와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갈 길이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이끌려졌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낳은 사람마다 잃어버린다면 얼마 안 가서 다음 세대는 끝날 것이다. 만일 한 세대 한 세대 우리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 굳게 서고 거기다가 밖에서 더해져 인수가 증가된다면 교회는 강해질 것이다. 결코 한 사람을 낳고 한 사람을 버리지 말라. 한 사람을 낳았으면 그 사람을 거둬나게 해야 한다.

먼저 가족들과 모임

우리의 연구와 체험과 관찰을 따를 때, 가정 집회가 교회의 증가와 건축을 위한 독특한 길임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다. 가정 집회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얻어진다. 가정 집회에서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사람, 섬기는 이, 복음 전파자, 가르치는 자, 그와 동시에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의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갖도록 격려한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헬라이어 구절은 단 한 집도 빠지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집집마다 모였다. 집회가 가능한 집들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런 집에서만 집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믿는 이들의 가정들은 모두 집회를 열 수 있다. 우리는 가정을 열어야 한다. 먼저 가족들과 모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먼저 모임 필요는 없다. 가족들과 모이는 것으로 가정 집회를 시작할 수 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가정 집회를 할 수 있다. 집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영 안에 있는 불을 타오르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불타야 한다. 그 후에야 가족들이 불타게 될 것이다. 가정 집회를 세우는 것은 가정을 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51-153p 발췌)